

도-시군 제2회 부단체장 회의 개최

주요현안·역점사업 등 논의... 최병관 행정부지사, “지역혁신사업 과제 발굴 등 협력”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2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과제 발굴, 늘봄학교 전면도입에 따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2024년 도지사 시군 방문 추진 등 도-시·군 주요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도는 공모 중인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대해 시군이 대학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신청 마감일인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5월중 예정되어 있는 RIS 핵심과제 2차 공모에 지역 소재 핵심분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2024년 2학기 도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14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413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대·과밀학교 밖 늘봄교실 운영 공간 부족에 따른 지원과 자원봉사자 배치, (가칭)늘봄지원협의체 구성 등 시군의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기 위해 5월부



전북특별자치도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2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터 추진하는 '2024년 도지사 시·군방문'과 관련해 도정 운영방향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군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본격적인 나들이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추진 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축제·행사철을 맞아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군산 수제 맥주&블루스 페스티벌, 익산 문화유산 야행, 제57회 농화농민혁명기념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했

다.

이에 도에서는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 맞는 도-시군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지역의 주요현안과 협력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여서 감회가 뜻깊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만큼 앞으로 시군과 적극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

이에 도에서는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 맞는 도-시군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지역의 주요현안과 협력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여서 감회가 뜻깊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만큼 앞으로 시군과 적극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기 도민 인권지킴이단 성과보고회

우수사례·인권침해 사례발표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전주 빌라데에서 제3기 도민 인권지킴이단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역량강화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 1부에서는 오기출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기후위기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주요활동 성과보고, 지킴이단 자조모임 우수사례 발표, 인권침해·차별행위 사례발표 및 향후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도민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을 인권지킴이로 위촉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내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및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

링 등 인권증진 향상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6년 5월 제1기가 출범했고, 현재 3기가 활동 중이며 올해 6월말 활동기간이 마무리된다.

이에 도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모집공고, 선발,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호윤 도 인권담당관은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이 한 자리에 모여 3년간의 다채롭고 다양한 인권활동과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잘된 점과 아쉬운 점들을 논의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인권지킴이단이 다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권증진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지진피해 예방 안전대책 추진

지난 3년간 도내 피해 없었지만 최근 대만 등 사례로 경각심 높여

최근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 지방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1,688명의 사상자, 23조 6천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3일 대만에서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해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다.

특히, 이시카와현과 교류지역인 전북자치도는 위로서한과 긴급 구호금을 전달해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했고 김관영 지사가 직접 이시카와현을 방문해 위로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2021년 군산지역 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있었으며, 지난해 7월과 12월 장수지역 지진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규모 2.0이상 지진은 총 11회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없었다.

전북자치도는 지진 발생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재난문자 발송 및 방송, 예찰 등 신속한 대처와 함께 행정안전부, 시군, 도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시설물 내진을 제고를 위해 금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으로 16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내진보강사업에 정상 추진을 위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관리하고 있

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지원사업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고를 위해 국비 활동, 정책개발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시군 소방·도민 등이 참여한 지진 대피 훈련을 시작으로 지진대피시설 및 지진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속 홍보와 11월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도 분청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전북자치도는 아직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진으로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진에 대한 관심과 내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만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며 도민들의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에서도 지진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도민들과 새만금 수질개선 발 벗고 나서

민간단체 공모 4개 단체 선정... 상류 비점오염원 제거 등 활동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과 함께 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 하천주변 비점오염원 제거, 불법 쓰레기 투기·소각 감시, 수질보전 관련 교육·홍보 등의 새만금유역 수질보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3월 민간 공모를 통해 도내 8개 단체가 접수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심사단이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단체 등을 1차

로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단체가 확정됐으며, 단체별로 1,800만원(총 7,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청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쓰레기 등이 산재된 하천변에 잡초 등 쓰레기 수거용 장비를 비치하여 플로깅 거점을 설치한다.

또한 SNS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플로깅 참여를 유도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변정화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

다. 농경지에 비료사용 등으로 유기시 유출되어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범적으로 논 배수물포 설치사업을 펼쳐 지역주민에게 현장 체험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물꼬설치 방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농업 비점저감 실천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 추진여부, 사업수행 현황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 점검을 추진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

국장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실천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특히, 선정단체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민들이 비점 저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새만금이 도민들의 자랑스런 생태 공간이자 삶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이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새만금 상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 환경단체들과 협업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등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해 왔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